

임진록(교재 외)

* 임진왜란의 발발

각설, 이때 조선 대왕께옵서 몽사(夢事)를 얻었으니, 어떠한 계집이 기장을 자루에 넣어 이고 완전히 들어와 내려놓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일장춘몽이라. 상이 제신을 불러 몽사를 설화하고 제신을 돌아보아 왈,
 “경등은 이 몽사를 해득하라.”
 하시니, 영의정 최일령이 주 왈,
 “신이 해득하오니, 가장 불길하여지이다.”
 하니 상이 가라사대
 “길흉간에 설화하라.”
 하시니, 일령이 복지 주 왈,
 “신이 잠간 해득하오니, 인변에 벼화하고 그 애 계집여자 하였으니 이 글자는 왜(倭)지어매. 아마도 왜놈들이 들어올 듯하여이다.”
 하니, 상이 대로하사 꾸짖어 왈,
 “시절이 태평하거늘, 경은 어찌 요망한 말을 하여 인심을 요란케 하고, 짐의 마음을 불안케 하느뇨.”
 하시며 “일령을 원찬(遠竄:귀양)하라.”
 하시니, 일령이 복지 사죄 왈,
 “소인이 지식이 없사와 요망한 말을 하였사오니, 그 죄만사무석(萬死無惜)이오나 복원(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며 돈수애걸하니, 상이 대로하사 왈,
 “잔말 말고 바빠 적소로 가라.”
 하시니, 일령이 하릴없이 적소로 가서 주야로 임군과 처자를 생각하고 탄식을 마치지 아니하더니, 이때는 임진년 춘삼월이라. 백화는 만발하고 방초는 요요한데 고향을 생각하고 마음이 산란하여 누각에 올라 산천을 구경하더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삼척 돛대 단 배 천여 척이 해상에 들어오거늘, 일령 대경하여 동래 부사를 불러 왈,
 “적선이 들어오니, 그대는 바빠 군사를 거두어 도적을 막으라.”(중략)
 이때 퇴재상 이순신이 이런 변고를 당할 줄 알고 거북 배 수천 척을 물에 띄우고, 그 안에 수 만여 군사를 용납케 하고 배 위로 구역을 무수히 뚫고 배안에서 밥을 지어 먹게 하고 연기는 배 입으로 나오게 하니, 완전한 큰 거북이 떠 다니며 흡사한 안개를 토하게 하였거늘, 왜장 등이 바라보고 대경하여 활과 총으로 무수히 쏘니, 거북등에 살이 무수히 박혔으되, 안은 뚫지 못하는 지라.

* 사명당이 왜왕을 통쾌하게 굴복시키는 장면

왜왕이 조선 생불(生佛) 온단 말을 듣고 만조를 모아 의논 왈,
 “조선 생불이 온다 하니 반드시 묘계 있으니 어찌하리오.”
 승상 홍굴통이 주왈,
 “생불은 조화 있나니 한 계교 있사오니, 조선 사신 오는 길에 일만팔천구백구십 장 병풍을 일만팔천구백구십 자 시문을 써 붙이고 외우라 하여, 잊지 아니 하오면 반드시 도술이라. 지위를 알 것입니다.”
 왜왕이 옳게 여겨,
 “조선 생불을 대접하라.”
 하고, 왜왕이 시신을 데리고 나와 사명당을 맞아 예를 마친 후에 왜왕 왈,
 “생불은 모를 것이 없다 하오니, 들어오는 길에 병풍서 있으니 외우고 있습니까?”
 사명당 왈,
 “왕은 삼척동자의 조롱이로다. 물어 무엇하리요. 그 병풍이 일만팔천구백구십이라.”/ 하니,
 “그러하면 그 시문을 외우고 있습니까?”
 사명이 염주를 좌수에 들고 가사를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튿날 오시까지 일만팔천구백팔십구 칸 시문을 외우니, 왜왕과 만조 제신이 놀라고 왈,
 “한 칸을 모르니 어찌된 일인고.”
 사명당 왈,
 “보지 못한 글을 어찌 알리오.”
 왜왕이 사람을 보내어 병풍을 살피니, 한 칸이 과연 바람에 덮였는지라, 더욱 놀라 묘계를 의논하니, 한 신하 주왈,
 “남문 밖에 한 못이 있으되 깊이 만여 장이라. 큰 잔치를 베풀고 구리쇠로 천 근 방석을 만들어 주며 생불더러 ‘저 방석을 타고 저 물 위에 선유하라.’ 하여 만일 시행치 아니하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왜왕이 옳게 여겨, 큰 잔치를 열고 사명을 데리고 장막을 치고 놀다가 천 근 방석을 내어놓고 왈,
 “생불은 저 방석을 타고 저 물 위에 다니면 생불의 도술을 알리이다.”
 사명이 속으로 웃고 사해용왕을 불러 육정 육갑을 외우고 방석을 타고 물 위에 떠 선유하니, 동풍 불면 서로 행하고, 남풍이 불면 북으로 행하는지라. 호령 왈,
 “왜왕은 들으라. 나는 석가여래 제자라. 물 위에 이렇듯이 선유하니 풍악을 갖추고 친히 나와 춤을 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화를 당하니라.”
 왜왕이 대경하여 일어나 춤추거늘, 사명이 종일 놀다가 별궁에 돌아와 가로대,

“왜왕은 바빠 행복하라. 임진년에 내 들어와 왜놈의 씨를 없애 하고자 하였더니, 석가여래께옵서 만류하시되, ‘다음 기회를 따르라’ 하시기로 이제 들어왔거니와, 너희는 하늘의 뜻을 모르고 외람되게 조선을 침범하니 우리 전하 근심하사, 또한 팔천 명 생불이 갈충보국하거든 네 어찌 항거하리오. 목숨을 아끼거든 항서를 올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왜국을 공지 만들리라.”

왜왕이 황겁하여 침식이 불안하더니, 또 한 신하 주왈, “한 묘계 있사오니 구리쇠로 가둘 옥을 만들고 사명을 방에 얹히고, 문을 봉한 후 숯불을 놓고 대풍구를 불면 제가 아무리 생불이라도 뼈가 녹으리이다.”

왜왕이 옳게 여겨, 구리쇠로 집을 짓고 사명의 처소를 정하고 문을 봉하고 숯을 쌓고 대풍구를 불거늘, 사명이 구리 방석에 얼음 빙(氷)자를 쓰고, 벽에는 눈 설(雪)자를 쓰고, 단정히 앉아 팔만대장경을 외우니 좌석이 서늘하더라. 이 때, 왜놈이 대풍구를 밤낮 이틀을 부니 구리쇠 기동이 다 녹는지라.

왜왕 알,

“아무리 생불이라도 혼백이 다 녹으리라.”

하고 군사로 하여금 문을 열어 보니, 사명이 가사의를 입고 완연히 앉아 호령 알,

“남방이 덥다 하더니 어찌 이리 춥소?”

자세히 보니 앉은 데 얼음이 깔리고 사방 벽에 눈이 뿌려 있거늘, 왜왕이 대경하여 사명을 다시 별궁에 앉히고 황황 분주하더니, 또 한 신하 주왈,

“이제는 백계무책이라. 환을 당할진대 또 한 계교로 시험하소서. 구리쇠로 철마(鐵馬)를 만들어 숯불에 달구어서 그 말을 타고 다니게 하십시오.”

왜왕이 알,

“불로 달군 방에서 얼음을 깔고 있는 생불, 어찌 불을 겁내리오. 그러나 시험하리라.”

하고, 구리쇠 말에 풍구를 달아 불 말을 만들어 세우고 조선 생불더러 타라 하니, 사명이 냉소하고 서쪽으로 조선을 향하여 사배(四拜)하고 침 세 번을 뱉으니, 서쪽에서 일점 흑운이 떠오며 순식간에 천지가 뒤눕고 벽력 소리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하며, 급한 비 담아 붓는 듯하여 바다가 창일하여 왜국 장안이 거의 해중(海中)에 문힐 듯하더라.

왜왕이 대겁하여 옥새를 끌러 목에 걸고 용표를 벗어 목에 매고 돈수 사죄 알,

“신령하신 생불은 잔명을 보존케 하옵소서.”

하며 애걸하거늘, 그제야 사명당이 비를 그치게 하고 알,

“이제 또 다시 반심(叛心)을 두어 조선에 항거할소냐.”

왜왕이 복지 애걸 알,

“차후는 그런 범람한 뜻을 두지 아니하오리다.”

하고, 백배 사례 알,

“잔명(殘命)을 살려 주시면 천추 만대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명당이 허락하고,

“매년 인피(人皮) 삼백 장과 동철 삼천 근과 목단 삼천 근과 왜물 삼천 근을 조공하라.”

하니, 왜왕이 그대로 항서를 써 올리거늘, 사명당 알,

“우리 조선에는 한 도(道)에 생불이 일천씩 계시니, 다시 반심을 두면 팔천 생불이 일시에 왜국을 공지(空地) 만들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왜왕이 백배 돈수하더라.

사명당이 조선에 나오므로, 왜왕이 배사후례로 전송하더라.

사명당이 조선에 나와 왜왕의 항서와 조공 물건을 전하께 올리고, 경상도 밀양 표충사에 내려가 칠월 망일에 졸하니, 전하 차탄하시고 표충사에 서원을 지어 춘추에 제향하라 하시고, 팔도 중에게 하교하시되, 매년 칠월 망일에 사명당을 위하여 재를 지내고, 천추 만세에 유전하게 하시고 불도를 더욱 추존하시더라.

* 김덕령 활약 (이본)

도적이 가까이 왔단 말을 듣고 모친 모르게 상복을 벗어 상문(喪門)에 걸고 집을 떠나 순식간에 왜진에 들어가니, 청정(淸正)이 김덕령을 보고 놀래어 수문장을 불러 호령 알,

“왜 진문(陳門)을 허수이 하여 조선 사람을 들어오게 하느뇨?”

군중에 하령 알,

“활과 총으로 쏘아 잡으라.”

하니 활과 총이 비오듯 하거늘 김덕령이 몸을 피하였다가 총과 화살이 그친 후에 다시 진중에 들어가 청정을 보고 불러 알,

“나는 평안도 평강 땅에 사는 김덕령이다. 네가 천운을 모르고 외람한 뜻을 가져 의기양양하기로 내가 왔으니, 내 재주를 보라. 내일 오시(午時)에 내 수만 명 군사 머리에 백지 한 장씩을 붙일 것이니 그리 알라.”

하고 문득 간데 없었다.

청정이 괴이 여겨 제장에서 부분 알,

“내일 총과 활을 많이 준비하였다가 사시(巳時) 말, 오시 초 되거든 짐승이라도 쏘아 죽이라.”

하더니, 그 이튿날 사시 오시 초녘이 되어 사면에서 채색 구름이 일어나며 지척(咫尺)을 분별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더니, 이윽고 하늘이 청명하며 덕령이 들어와 청정을 불러 꾸짖어 알,

"나의 재주를 보라."

하고 백지를 던지니 역만 군사 머리에 올라 감기거늘
역만 군사가 백화(百花)밭이 되는 것이었다.

청정이 그 재주를 보고 크게 질색하여 왈,

"내 재주 팔 년을 공부하였으되, 저러한 재주를 배우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리오. 아마 저 사람을 유인하여 선봉
을 삼으며 염려 없이 대사를 이루리라."

하고 자탄(自歎)하는데, 덕령이 머리에 달린 백지를 일
시에 걷어 치우고 청정을 불러 왈,

"나도 운수 불길하기로 재주만 뵈었으니 빨리 돌아가
라. 만일 듣지 아니하면 부친 상옷을 상문에 사르고 너
희를 한칼로 무찌를 것이니, 부디 잔명(殘命)을 보전하
여 급히 돌아가라."

하고 간데 없거늘, 청정이 의심하여 급히 성중으로 돌
아가니라.

* 중국의 구원병 파병

이때 대국(중국) 천자께옵서 청병 사신을 그냥 보내고
주야로 염려하시더라. 한날 밤에 동대(중국 태산의 판
이름)에서 일원 대장이 내려와 탑전(임금의 자리 앞)에
복지 주 왈,

"형님은 어찌 청병을 보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대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어찌 날더러 형님이라 하
느뇨?"/장수 왈,

"소장은 삼국 적 관운장 이읍고, 형님은 유현덕이 환생
하여 천자가 되고, 장비는 환생하여 조선 왕이 되고 소
장은 미부인을 모시고 조조에게 갓잡다가 무죄한 사람
을 죽이므로 환생치 못하옵고 조선 지경을 지키옵더니,
지금 왜적이 조선을 덮어 거의 땅을 다 뺏기웁고 종묘
사직 조모간에 망케 되웁고 조선왕 명이사각에 있삽거
늘, 형님은 어찌 청병을 아니 보내시나이까?"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비참하여 대경통곡하시고 그 장
수를 살펴보니 신자는 구척이요, 손에 청룡도를 비껴
들고 봉의눈을 부릅뜨고 삼각수를 거느리고 왔으니, 분
명한 운장일러라. 천자 용상에 내려와 재배 왈,

"장군은 누구를 보내라 하시나이까?"

운장이 왈,

"청병은 팔십 만만 보내고 장수는 당나라 이여송을 보
내시면 왜적을 물리치고 조선을 구하고 오리이다."

뜰 아래 내려서 왈,

"형님이 내 말을 아니 들으면 무사치 못하리이다."

하고 문득 간데 없거늘, 천자 대경하여 공중을 향하여
재배하고 이튿날 조회에 백관 모아 의논 왈,

"짐이 간밤에 일몽을 얻으니, 조선 관운장이 와서 여차
여차 하고 저리저리하고 청병을 보내라 하기로 청병은

못 보낸다 하였으나 제경들의 뜻이 어떠하뇨?"

제신이 주 왈,

"운장은 본디 충절이 이시는 장수오니 지휘대로 하옵
소서."

천자 즉시 조서를 하여 익중에 내리사,

"군사 팔십 만 명을 거두라."

*중국 원군 이여송과 조선 장수들의 만남

평안도 평강 땅에 사는 김응서(金應西)와 전라도 전주
사는 강홍엽(姜弘葉), 황해도 사는 김승태(金勝台)와 경
기도 사는 문두황(文頭黃)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범
같은 장수라. 각각 갑주를 갖추고 이여송에 뵈오니 보
시고 칭찬 왈,

"조선 같은 편소지국(偏小之國)에 저러한 영웅호걸이
 많거늘 어찌 요란치 아니 하리오."

하고 그 중에 재조를 보려하고 높은 깃대 끝에 황금
일만 량을 달고 왈,

"제장 중에 저기 달린 황금을 떼어 오는 자 있으면 선
봉을 삼으리라."

하니, 제장이 영을 듣고 한 장수 내달아 춤추며 몸을
날려 솟구어 황금을 철추로 치니 황금이 떨어지는지라.
또 한 장수 내달아 몸을 소소와 남은 황금을 떼어 가
지고 돌아왔거늘, 이여송이 장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성명이 뉘라 하느뇨?"

장졸이 대 왈,

"먼저 장수는 김응서요, 두 번째 뎡 장수는 강홍엽이로
소이다."

하니 응서로 선봉을 삼고 홍엽으로 후 선봉을 삼고, 유
후수로 좌익장을 삼고 백철남으로 우익장을 삼고 김
일관으로 군량장(軍糧將)을 삼고 그 남은 제장은 다 후
군장을 삼을 새, 제장이 군사를 몰아 강원도 왜장 청정
의 진으로 행하니라. 이때 왕께서 유성룡을 불러 가라
사대,

"조선 군사와 대국 군사의 군량장을 맡아 수운하라."
하시더라.

각설, 이때 이여송이 왈,

"좋은 술 천 독만 내일 식전에 대령하라."

하니 응서 대답하고 나와 군중에 전령하되, 땅 밑을 깊
이 파고 술 천 독을 하여 묻고 그 위에 백탄 숯을 피
워 밤새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술 천 독을 대령하니,
이여송이 보고 칭찬 왈,

"조선도 명인이 있도다." 하고 또 분부하여 왈,

"내일 조시(潮時)에 용탕(龍湯)을 대령하라."

하니 응서 능히 대답하고 나와 서천(西天)을 바라보고

슬피 우니 어떠한 용이 시냇가에 죽었거늘 즉시 용탕을 지어 올리니, 이여송이 또 가로되,
"소상반죽(瀟湘斑竹) 젓갈을 들이라." 하니, 응서 능히 대답하고 나와 전하께 상달하니 상이 가라사대,
"그 전 선조 시에 신하 어떠한 양반이 일후에 써 먹을 일이 있다 하고 전하여 온 것이 있으니 급히 가져가라." 하시되 응서 반겨 들고 젓갈을 갖다 올리니, 이여송이 칭찬 왈,
"천재로다, 천재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도다." 하고 또 분부 왈,
"내일 조시(朝時) 초에 백마(白馬) 백 필을 대령하라." 하니 응서 능히 대답하고 군중에 전령하되,
"분칠도 하고 흰 가루칠도 하여 백마 백필을 대령하라." 하니 이여송이 대소(大笑) 왈,
"임시 체면이라도 저렇듯 하니 어찌 그대의 재주 없으리오."
하고 인하여 유성룡으로 군량장을 삼아 군량 수운하게 하고 청정의 진으로 향하더라.

*김응서의 활약

응서 원익을 대하여 계교를 일러 왈,
"소장이 오늘 밤에 성을 넘어 들어가 종일을 버혀 올리니 장군은 모름지기 성밖에 있다가 혹 급함이 있거든 구하소서."
하고 청포검을 짚고 성을 뛰어넘어 들어가니 성중이 고요하여 순라(巡邏)¹⁾하는 군사 군막을 의지하여 자거늘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수문(守門)하는 군사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다만 사 오인이 잠을 깊이 들었거늘 응서 청포검을 들어 일시에 다 버히고 문을 넘어 들어가니 이때는 정히 삼경이라, 관중(關中)에 등축이 조요(照耀)하고 호위하였던 군사 다 물러 잠들고 인적이 고요하거늘 응서 칼을 들고 주저할 즈음에 마침 수청하던 기생(妓生)이 소피(所避)²⁾하러 나왔다가 응서를 보고 대경 왈,
"그대 어떤 사람이관대 이런 위태한 땅에 들어왔느냐."
응서 왈,
"나는 본디 원익의 부장이라, 이제 적장(敵將)을 죽이고 평양을 회복코자 하노니 네 또한 조선 사람이라, 날을 위하여 왜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기생³⁾ 왈,

"왜장의 성명은 종일시오 관중에 거처하되 사면에 휘장을 드리워 그 귀마다 방울을 달고 방울이 조금 요동하면 소리 요란한지라, 이러므로 불의지변을 방비하고 하루에 두 말 밥과 두 말 술과 이십 근 고기를 능음하며 높은 배계에 상(相)을 돋우 놓고 누웠으니 삼경 전에 귀로 자고 눈으로 보며 삼경 후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들으며 사경 후는 귀와 눈을 함께 자오니 장군은 모름지기 상심하여 대사를 그르게 마르소서. 만일 소루함이 있으면 대화(大禍)를 만나리니 첩(妾)이 먼저 들어가 저의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탐지하고 인하여 방울귀를 솜으로 막은 후 문을 열고 나오거든 장군이 즉시 들어와 하수(下手)하시고 저의 용력(勇力)이 절륜(絶倫)하니 몸을 급히 피하소서."

하고 몸을 돌려 들어가더니 오래도록 나오지 아니하거늘 응서 칼을 짚고 주저할 즈음에 그 기생이 나와 이르되,

"급히 들어가 하수하라."

하거늘 응서 칼을 빗기고 바로 당중에 들어가니 종일이 술이 취하여 장창(長槍)과 보검(寶劍)을 가로 쥐고 누워 코를 우레같이 골거늘 응서 급히 뛰어 들어가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힘써 버히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올라 앉으니 종일이 이미 머리 없으되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청룡검으로 들보를 치니 응서 군복 자락이 맞아 찢어져 내려지며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하(床下)에 거꾸러지며 피흘러 장중에 가득하거늘, 응서 급히 뛰어내려 종일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장(帳)을 헤치고 나오려 하니 그 기생이 울며 고왈,

"장군이 어찌 소인을 사지(死地)에 두고 가시나이까."

하며 따라 나오거늘 응서 잔인히 여겨 차마 보지 못하여 한가지로 나오더니 장중이 자연 요란하므로 관중(關中)이 소동하여 사면에 순라하던 군사가 일시에 횃불을 밝히고 창검을 두르며 함성이 진동하거늘 응서 그 기생을 거두 잡고 한 손으로 청포검을 들어 전군을 짓쳐 좌우로 충돌하여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는 왜장 평행장이 칼을 두르고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왈,

"네 간사한 꾀로 가만히 들어와 우리 장수를 죽이고 당돌히 달아나고자 하느냐, 네 죄를 스스로 생각하여 내 칼을 받으라."

하고 달려들거늘 응서 평생 기력을 다하여 청포검을 휘두르며 죽기로써 짓쳐 나오니 그 봉예(鋒銳)를 뉘 능히 당하리요. 청포검 이르는 곳마다 왜장의 머리 추풍낙엽(秋風落葉) 같은지라.

1) 순라 - 순라군. 도둑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도성 안을 순행하던 군사.

2) 소피 - 소변.

3) 기생 - 흑룡일기(黑龍日記)등 이본(異本)에는 이름이 '계월향

(桂月香)'으로 밝혀져 있음.